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0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불사의 정체
2. 법정 스님 편지
사랑. 그것은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2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자비 2 / 설산에 사는 자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오백 가지 삼매의 문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작은 위로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 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10월 1일 발행, 통권 344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불사의 정체

부처님!

불사라는 행사가 요즘에는 왜 그리도 많습니까? 걸핏 하면 ‘백일기도’ ‘만인동참기도’ ‘보살계 산림’ ‘가사불사’ 탑에 물방울 정도 튀기는 ‘세탑불사洗塔佛事’ 아이들 장난도 아닌데 위조지폐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는 도깨비 놀음 같은 ‘예수재’ 등등... 이 밖에도 일찍이 보고 듣지도 못한 별의별 희한한 불사들이 정말 비 온 뒤의 죽순 처럼 여기저기서 잇달아 만행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불국 세계가 도래하는가 싶게 말입니다.

불사라는 본래 뜻은 제불의 교화를 가리킨 것으로 개안開眼·상당上堂·입실入室 등에 주로 쓰인 말인데, 요즘에는 흔히 승려들의 일용사에도 낙착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사의 본래 뜻에 합당한 불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흔히 불사란 이름을 내걸고 실속은 엉뚱한 데 있는 불사佛事 아닌 ‘불사不事’를 자행하고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구도자의 양심에 비추어 보다 몇몇할 수 있는 법다운 불사가 얼마나 될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중이 돈이 아쉬우면 멀쩡한 축대라도 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코 웃어넘길 수만 없는 가슴을 찌르는 통절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럴듯한 이름을 내건 ‘법회’라는 모임이 있을 때면, 으레 그 끝은 한꺼번에 몇 가지씩 두둑한 ‘권선책勸善冊’이 나돌기 마련입니다. 결코 ‘희사喜捨’일 수가 없도록 반강요하는 눈초리를 보냅니다. 재화를 다수 내놓으면 흔히 말하

기를 ‘신심이 장하다’고 합니다.

재화가 신심의 바로미터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사라는 미명 아래 신도들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순진한 신도들은 교화를 입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출혈적인 혹심한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돈도 없는 사람은 절에도 나갈 수 없더라’는 비불교적인 서글픈 탄식이 나오는가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승려의 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운데서 수도에 전념하는 의젓한 구도자가 몇이나 되는지, 관계 기관인 중앙총무원에서도 책계策計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포교당을 비롯해서 신도들을 자주 접촉하고 있는 절간에서는 신도의 일람一覽 카드가 어느 시층의 호적 사무 못지않게 질서 정연히 정비되어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성스러운 곳에서는 카드에 금전 출납의 기재란까지 만들어 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런 짓을 포교의 사명처럼 착각하고 있는 두꺼운 안면신경을 가진 당신의 제자들이 허다합니다. 불사라고 당신의 이름을 팔아 거행되는 그 양면에는 얼마나 썸 빠른 타산이 오르내리는지, 부처님도 아시게 되면 얼굴을 붉히시리다. 속이 유리 속처럼 뻥히 들여다보이는데 이 어설픈 수작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이런 무자비한 횡포도 있었습니다. 시정市井에서 어떤 모임을 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동작들에 슬퍼

지기까지 합니다. 그 숨 막히는 조직 사회에 염증이 나서 어쩌다가 당신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을, 조직 속에 얽매려는 선참인先參人들의 무자비한 횡포가 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피곤한 나그네에게 앓을자리는 고사하고 트인 길조차 막아 버리려 하다니! 싱싱하게 이끌어 주어야 할 구도의 길을 짓눌러 버리려 하다니! 더구나 이쪽이 물가物價的으로 여유 있다는 것을 선참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식욕은 왕성하게 동動해서 상대방의 의사도 아랑곳없이 그 잘난 ‘신심信心’이라는 코걸이를 미끼로 내세우면서 감투를 뒤집어씌우는 이 노오란 술책術策! 우리는 그러한 모임에서 어떻게 순수한 종교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요즘 향간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패러독스가 떠돕니다. ‘큰스님’의 체중體重이란 법력이나 도덕의 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신도들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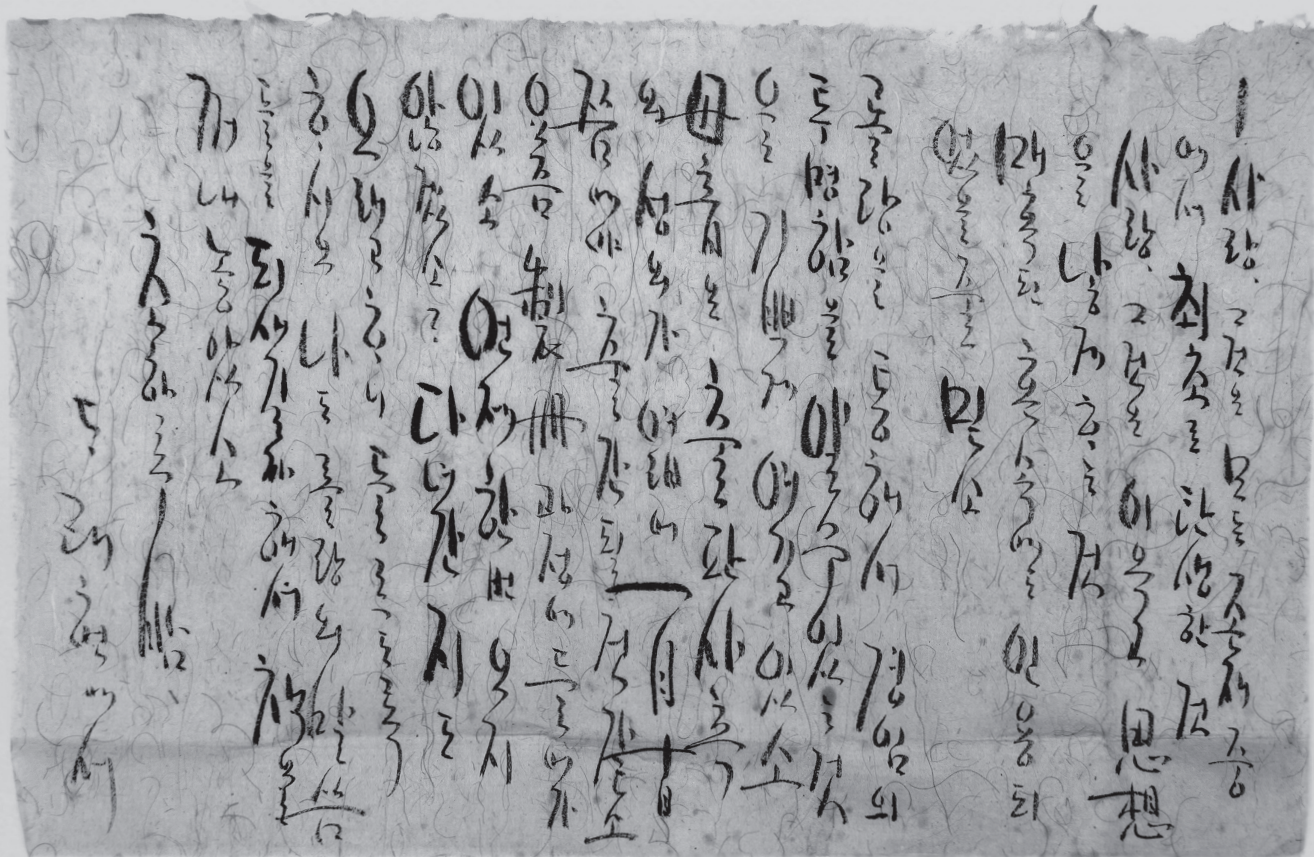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귀의한 순백純白한 신앙인들을 마치 하나의 재원財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불사란 말은 이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사不事’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시급하고 긴요한 불사라면, 한시바빠 이 중생의 탈을 벗고 또한 벗겨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964년 10월 18일

2. 법정 스님 편지



사랑.

그것은 모든 존재 중에서 최초로 탄생한 것.

사랑.

그것은 이윽고 思想을 낳게 하는 것.

매혹된 혼 속에도 인용되었을 줄 믿소.

롤랑을 통해서 경임의 투명함을 알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소.

모퉁이는 출판사 측의 성의가 없어 1월 10일쯤에야 출간될 것 같소.

요즘 製冊 과정에 들어가 있소.

언제 한번 오지 않겠소?

다녀간 지도 오래고 하니 들르도록 하시오.

나도 롤랑의 말씀들을 되새길까 해서 책을 꺼내 놓았소.

초하룻밤

다래헌에서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반야화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2

이 글은 2004년 4월 10일 길상사 산행 단체 특별 법회에서 법정 스님이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학자들은 신앙인의 자세를 두 가지로 나뉘요. 하나는 문사, 즉 듣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스타일. 신앙생활에는 크게 문사형 봉사형이 있다는 거예요. 법문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후원에서 뒷바라지하고 남들 잘 하도록 거들어 주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문사와 봉사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극하게 정진하고 노력하면 뿌리에 도달합니다. 뿌리에 도달하면 그 안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후원에서 뒷바라지하는 것이 단지 봉사로 그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의 계발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내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씩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법문을 듣고 공감해서 그냥 좋아하고 만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걸 자기의 삶에 옮기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사와 봉사가 동시에 내 안에 작용하게 됩니다.

흔히 내가 깨닫기 전에 어떻게 남을 구제하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럴듯합니다. 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보살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독각이나 성문 같은 소송 생각이에요. 설사 나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깨달음에 이끌렸다는 이런 원이야말로 보현의 행원 아닙니까? 이웃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자비의 화신이 깊은 지혜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오온개공五蘊皆空, 안팎으로 늘 영원한 것이 아니고 텅 비어 있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살펴서 도 일체고역度一切苦厄, 일체 중생의 고통과 재난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의 이론입니다. 나 혼자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깨닫게 함으로써 나도 동시에 깨닫는다는 거죠. 후원에서 법회날 일할 때 아이고 나는 법문도 못 들었고 일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여럿이 좋은 법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잘 살면 동시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더 큰 법문이 됩니다.

법문이라는 게 무슨 경전 해석하고 듣기 좋은 소리 번지르르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나 자신답게 불자답게 어떤 행을 하고 사느냐에 의해서 큰 법문이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법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처음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스스로 화두처럼 질문한 것이 있어요. 종교란 도

대체 뭘까? 관념적인 물음이 아니고 아주 절실한 물음이었어요. 새삼스럽게 종교란 도대체 뭘가 하는 것이. 그러다 오는 길에 대만에 들러 며칠 있으면서 대만 재가 불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종교는 다른 게 아니고 자비의 실천이구나, 사랑의 실천이구나,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종교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게 종교란 걸 다시금 느낀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대장경 소장경 할 것 없이 결론적으로는 행위예요. 보살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도달해야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그친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소송이에요. 세상이란 뭘니까? 우리가 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국 불교가 가끔 지적받고 있는 것도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머물러 있지 세상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예요. 절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보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어디 법회 가면 우선 먹을 거 생각해서 법회 끝나기 전에 가서 진 치고 앉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 시골에서 보살계 같은 것 할 때 보세요. 진짜 대승 불자가 되기 위해 계 받으러 와서 잘 자리가 없을까 봐, 먹을 음식 떨어질까 봐 미리 도중하차해 후원으로 가고, 방에 가서 뺨고 누워 있잖아요. 한심스러워요. 누구나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관념적인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입니다.

(끝)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자비慈悲 2 / 설산에 사는 자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149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발하라.

150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151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152 온갖 빚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戒律을 지키고 지혜知慧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毌胎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윤회가 없다는 뜻이다.)

설산에 사는 자

153 칠악 야차七惡夜叉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布薩 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야차'는 범어 야크샤yakṣa에서 음역된 말인데, 본래는 신적 존재, 영적 존재를 의미했다. 그러나 후기에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포악한 귀신의 일종으로 생각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귀신의 한 가지다. '포살'은 범어 우포사타uposatha에서 온 말로, 한 달에 보름과 그믐 두 차례 출가 수행자들이 불전에 모여 계율을 읽고 지은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154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까?”

155 칠악 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생각은 스스로를 잘 자제할 수 있다.”

156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을까? 그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는 게으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멈추고 있지 않을까?”

157 칠악 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禪定을 멈추지 않는다.”

158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159 칠악 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160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을까? 마음의 방황迷妄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161 칠악 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욕망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방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162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순수할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그는 이제 또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오백 가지 삼매의 문

선재동자가 이와 같이 슬픔에 잠겨 생각할 때
항상 따라다니며 보살을 깨우쳐 주는
여래의 심부름꾼인 천신이 공중에서 말했다.

“선남자여,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세존께서 다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수순하면
곧 일체지의 경지에 가까워지며,
선지식의 말에 의혹이 없으면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발심해 항상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이치를 두루 갖추게 될 것이다.
그대는 어서 안주安住의 서울로 가라.
부동 청신녀 큰 선지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때 선재동자는 그 삼매의 지혜 광명에서 일어나
길을 재촉하다가 안주성에 이르러
부동 청신녀를 두루 찾아다녔다.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부동 청신녀는 처녀인데,
부모의 보호 아래 집에 머물면서
여러 친척들에게 미묘한 법을 말합니다.”

선재동자는 이 말을 듣고 마치 부모를 만난 듯

기뻐하며 그길로 부동 청신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집에서는 금빛 광명이 두루 비쳐 나오는데,
그 광명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몸과 생각이 시원해졌다.
선재동자 또한 그 광명이 몸에 닿자
곧 오백 가지 삼매의 문을 얻었다.
이른바 모든 희유한 모양을 아는 삼매문,
고요에 드는 삼매문,
세간을 멀리 떠나는 삼매문,
넓은 눈으로 모두를 버리는 삼매문,
여래장 삼매문 등이다.
이 삼매문을 얻자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이레 된 태와 같았으며,
미묘한 향기를 맡으니 하늘 · 용 · 진달바 등
인사 · 비인非人의 것이 아니었다.
선재동자는 청신녀의 처소에 나아가 공경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그 모습이 단정하고 뛰어나
시방세계의 어떤 여인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고,
입에서 나는 미묘한 향기와
궁전의 장엄과 그 권속들도 그와 견주거나
그보다 뛰어날 이가 없었다.
시방세계의 어느 중생도 이 청신녀에게는
염착染着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잠깐 보기만 해도 모든 번뇌가 저절로 소멸되었다.
마치 대범천왕에게는
욕계欲界의 번뇌가 생기지 않듯이
이 청신녀를 보는 이의 번뇌도 또한 그와 같았으니,
다만 큰 지혜를 갖춘 이 말고는
이 여인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선재동자는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정념으로 관찰했다.
이 여인의 몸은 자유자재해 헤아릴 수 없으며,
빛깔과 얼굴 모습은 이 세상에 견줄 이가 없고,
광명이 꿰뚫어 그를 가릴 것이 없으며,
중생을 위해 널리 이롭게 하고,
몸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며,
공덕이 깊고 넓어 끝닿은 데를 알 수 없었다.
선재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계송으로 찬탄했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넓고 큰 인욕을 수행하며
정진해 물러나지 않으니
광명이 세간에 두루 비치다.

선재동자는 계송을 읊고 나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이때 부동 청신녀는
보살의 부드러운 말과 뜻에 맞는 말로
선재동자를 위로하며 말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작은 위로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구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느님
오늘은 하루 종일
꿈쩍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5일(목)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 기행(접수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0월 28일(토) / 충북 괴산군 사담계곡, 낙영산 공림사(접수는 10월 4일 부터)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림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복합 문화 공간 '함께(2층),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운영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글 나눔 사업
 - 상담, 심리 치료,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 지대 아동, 청소년, 홀로 어르신 등 지원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 종료(자립 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33독기도
 - 일시: 10월 7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독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이번 다라니 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4 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 중앙절(사업 성취 발원기도)

- 일시: 10월 23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코로나 등 각종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중앙절 사업 성취 발원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이 난관을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10월 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10월 7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0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10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0월 2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